

舊韓末 沈南一 義兵의 組織과 그 活動

洪 英 基

I. 머리말

II. 沈南一 義兵의 組織

III. 沈南一 義兵의 活動

IV. 맺는말

I. 머리말

최근 일본에서 『南韓暴徒大討伐記念寫眞帖』이 발견되어 학계에 소개된 바 있다.¹⁾ 이 사진첩에는 이른바 “南韓暴徒大討伐作戰”에 참여했던 日本軍 將校들과 그들에 의해 체포된 義兵將들의 사진이 실려 있다. 그 밖에 의병들이 빼앗긴 무기와 의병을 진압하는 일본군 및 작전 지역의 중심도시, 그리고 日本軍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 의병들의 처참한 모습도 담고 있다. 말하자면 이 사진첩은 1908~9년에 전국에서 가장 격렬한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全南地方 義兵活動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그런데 필자는 이 사진첩의 여러 희귀한 사진들중에서도 의병장 16명의 단체사진과 “暴徒巨魁”라고 기록된 개별사진에 특히 주목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1908~9년 사이의 湖南義兵을 주도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 16명의 義兵將, 그중에서도 “暴徒巨魁”라고 특별히 지칭된 全海山, 沈南一, 安圭洪, 姜武景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조차 미미한 실정이었다. 물론 全海山과 安圭洪 義兵

1) 金義煥, 『『南韓暴徒大討伐記念寫眞帖』解説』, 『民族文化論叢』 8, 1987, pp. 291~327.

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혀진 바 있다.²⁾ 그러나 일본측이 “暴徒巨魁”라 기록한 4명 가운데 2명인 沈南一과 姜武景에 대해서는 아직껏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³⁾

이에 본고에서는 沈南一과 그의 의병부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沈南一의 의병투신전의 활동과 그 투신 동기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그가 어떻게 독자적인 의병을 조직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밝혀보겠다. 필자의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이 舊韓末 湖南義兵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Ⅱ. 沈南一 義兵의 組織

沈南一(1871~1910)의 本名은 守澤, 字는 德弘이며 本貫은 靑松이다.⁴⁾ 南一은 그의 號인데, 吳駿善이 쓴 「義兵將沈南一傳」(『자료집』 2, p. 927)에 「其曰南一者 起義時自號 世皆以南一稱之」라 하여, 沈守澤이 의병을 일으키면서 南一이라 自號하였으므로 그후 세상에서는 모두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南一”을 全南 第一의 首將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⁵⁾

- 2) ○姜吉遠, 「海山 全垂鏞의 抗日鬭爭」, 『歷史學報』 101, 1984, pp. 23~59.
○拙稿, 「安圭洪 義兵의 組織과 그 活動 —舊韓末 湖南義兵의 一例—」, 『韓國學報』 49, 1987년 겨울호, pp. 68~101.
○姜吉遠, 「瀋山 安圭洪의 抗日鬭爭」, 『孫寶基博士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知識產業社, 1988), pp. 999~1020.
- 3) 아직까지 沈南一과 姜武景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은 없다. 다만 舊韓末 湖南義兵史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간단히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기왕의 연구성과는 본문에서 인용할 것이다.
- 4) 吳駿善撰 「義兵將沈南一傳」, 『沈南一實記』 (『독립운동사자료집』 <이하 『자료집』> 2, p. 927)과 「暴徒에 關한 編冊」(이하 「編冊」) 69. 全南警秘發 第2082號, 隆熙 3년 10월 23일자(『韓國獨立運動史』 <이하 『運動史』> V. 15, p. 817) 참조.
- 5) 「編冊」 10. 韓憲警乙 第1163號, 明治 41년 10월 7일자(『運動史』 V. 12, p. 325) 참조.

그러면 먼저 그가 의병에 가담하기전의 行迹을 살펴보자. 그는 현재의 全羅南道 咸平郡 月也面 亭山里 新基에서 沈宜奉과 晉州 姜氏 사이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⁶⁾ 그의 집안은 벼슬이 끊긴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시골 寒土의 체통이라도 부지하려고 애썼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역시 어려서부터 漢學을 익히면서 성장하였다.⁷⁾ 그러다가 그는 平澤 林氏와 혼인하여 두 아들과 세 딸을 둔 家長이 되었다.⁸⁾

이처럼 평범한 생활을 해오던 그에 대하여 일본측 기록에서도 「農業 일찌기 訓長이 되었던 일이 있음. 다소 學識있음」⁹⁾ 이라거나, 『全南暴徒史』(이하 『暴徒史』), p. 140에서는 「벼슬을 한 적이 없고 爵位榮典없음」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沈南一은 관직을 역임한 적은 없으나 다소 학식이 있어서 서당 訓長을 지낸 시골 선비로, 손수 농사를 지으면서 부인과 2男 3女를 거느린 家長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그런데 그는 남달리 강한 義氣를 지녔던 것 같다. 吳駿善의 「義兵將沈南一傳」(『자료집』 2, p. 928)에

若南一者 遐鄉一布衣耳 雖閉門家居 保全其身 無所不可而只 以忠義奮不顧身 投袂而起

6) 『青松沈氏知成州事公派譜』 卷 3(光州, 1966), pp. 45a~47b 참조.

7) 『大韓民國獨立運動功勳史』(國史編纂委員會, 1983), p. 652 참조.

8) 『青松沈氏知成州事公派譜』 卷 3, p. 47a·b 참조.

9) 「編冊」 153. 義兵將 姜士文·安桂洪·黃斗一·權寧會·沈南一·姜武景取調書, 隆熙 3년 10월 15일자(『運動史』 V.1, p. 790) 참조.

10) 金義煥은 그를 鄉班이라 하였다(『抗日義兵將列傳』, 正音文庫 91, 1975, p. 205 와 「1909年の抗日義兵部隊의 抗戰」, 『民族文化論叢』 8, 1987, p. 225 참조). 한편, 黃玟(1855~1910)의 『梅泉野錄』(國史編纂委員會, 1955) 卷 6, p. 511에 「南一本咸平人 嘗入倭學倭 兼習英語」라고 있어서 沈南一이 마치 日本에 유학하여 新學問과 英語를 익힌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실을 구체적인 검토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姜在彦, 「反日義兵運動의 歷史的展開」, 『朝鮮近代史研究』(日本評論社, 東京, 1970), p. 297 과 「義兵抗爭史」(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4), p. 283).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 같다. 『沈南一實記』(이하 『實記』), 『暴徒史』, 「編冊」, 「暴徒史編輯資料」, 「朝鮮暴徒討伐誌」 등에서 沈南一과 관계된 기록의 어디에도 그러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있듯이, 南一과 같은 자는 외딴 시골의 一布衣로서 비록 문을 닫고 살며 그 몸을 보전하더라도 不可하지 않는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충의로써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시골 寒士에 불과한 그가 일본세력의 침투에 대한 강한 반발심의 소유자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가 일본세력을 驅逐하고 國權을 되찾기 위해 의병을 일으키려 하였다는 사실은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吳駿善의 「義兵將沈南一傳」에

(南一)常欲奮不顯身以殉 國家之急者 及至乙巳勒約之後 痛宗社之危亡 憤奸賊之愚弄 將欲倡義復權(中略)而應募者無幾

라 하여, 그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의병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응모자가 얼마 없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名望있는 儒生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財力이 튼튼한 富豪도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¹¹⁾

이에 그는 독자적인 의병거사계획을 뒤로 미루고 이미 활동중에 있는 의병부대에 가담하였다. 그가 체포된 후

日本政策이 韓國을 德化함에 있지 않고 暴力으로써 이를 奪取하려 함으로써 日本을 韓國에서 驅逐하고자 隆熙元年 9월에서 12월까지 奇參衍, 金泰元, 金聿等 諸首魁가 如何한 行動을 하는가를 보기 위하여 長城 靈光 咸平 各郡을 徘徊...¹²⁾

라고 말한 사실로써 볼 때, 그는 義兵將 奇參衍·金泰元·金聿 휘하에서 1907년 9월부터 약 3년간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義兵將 奇參衍을 비롯한 金泰元·金聿兄弟는 각각 약 4,5백명의 의병을 규합하여 당시 全羅道에서 가장 강력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는데, 日本軍 조차도 이들이 神出鬼沒하다고 말할 정도였다.¹³⁾ 이 때문에 1908년 1월 26일과 同年 4월 19일에 이들을 체포 소탕하기 위한 진담 討伐隊가 조직되어

11) 그와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참고된다. 즉 1908~9년도 全羅南道의 中東部地方에서 크게 활약한 安圭洪도 머슴출신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士類들이 전혀 호응하지 않아서 독자적인 의병을 일으키지 못하였다(拙稿, 앞의 논문, p. 75).

12) 註 9 참조.

13) 「暴徒史編輯資料」全南警備親 제 89호, 隆熙 2년 9월 29일자(『자료집』 3, pp. 555~6) 참조.

활동하였다.¹⁴⁾ 그 결과 1908년 1월 30일에는 奇參衍이 체포 총살되었고 同年 3월 29일에는 金聿이 체포되었으며, 이어 4월 25일에는 金泰元마저 전사하였다.¹⁵⁾ 이로써 名門儒生 義兵將 奇參衍 휘하의 여러 의병부대는 일본측의 강력한 토벌작전을 피해 그들의 주 활동지역인 장성·함평을 떠나 全羅南道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대구도의 의병부대는 일시 자취를 감추었으나, 진라남도 전역에 의병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¹⁶⁾

한편, 그 무렵 沈南一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編冊」 69, '全南警秘發 第2082號, 隆熙 3년 10월 23일자(『運動史』 V. 15, p. 817)에

沈南一 本名 秀澤 字 德弘

元巨魁 金聿의 部將으로 金의 死後 獨立하여 首魁가 되어 部下 二百餘名을 갖고 優勢한 巨魁였다.

라고 있듯이, 그는 1907년말에서 다음해 봄까지 金聿의 部將으로 활동하였다가 金의 死後에 독자적인 의병부대를 형성하여 의병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金聿의 휘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맡았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部將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金聿 義兵部隊의 핵심 세력이었으리라 믿어진다.¹⁷⁾

그러면 그가 독자적인 의병부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

14) 「編冊」 13 羅秘發 第13號, 隆熙 2년 1월 27일자(『運動史』 V. 9, p. 33)와 『暴徒史』, p. 43 참조.

15) 『暴徒史』 p. 14, 40, 44 참조.

16) 「朝鮮暴徒討伐誌」(『자료집』 3, pp. 7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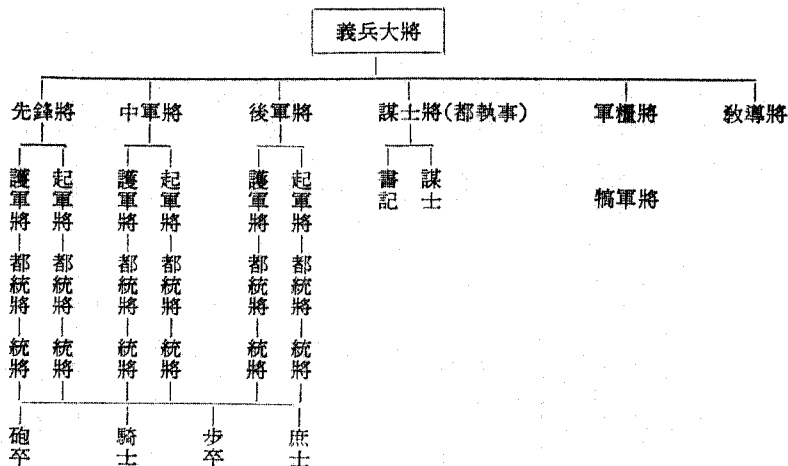
17) 「編冊」 2. 羅秘發 第26號, 隆熙 2년 2월 1일자(『運動史』 V. 9, pp. 184~192)에는 金聿 義兵部隊의 名簿로 추측되는 「暴徒加盟者名簿」가 실려있다. 이 명부는 義兵들이 日本軍 守備隊와 交戰中에 빼앗긴 것인데, 金聿을 선두로 하여 모두 167명의 주소·성명·연령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명단에는 沈南一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 명부의 스무번째에 沈弘澤이란 인물이 눈에 띈다. 그는 이름만 다를뿐, 주소와 나이는 沈南一과 같다. 필자는 그가 沈南一과 동일인이라 생각한다. 그가 아직은 金聿의 部將에 불과하였으므로 南一이라는 號를 사용하지 않고 本名이나 字를 썼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本名은 守澤이므로 弘澤의 '弘'이 守의 誤字일 수도 있고, 또

기로 하자.

隆熙二年 陰二月부터 意를 決하고 威平·南平·寶城·長興 各郡에서 一人 二人式 部下를 募集하여 스스로 大將이 되었다.¹⁸⁾

위에서 볼 수 있듯이 1908년 음력 2월부터 威平·南平·寶城·長興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1인 2인씩 의병을 모았다는 것이다. 그가 金聿의 部將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에는 원래 金聿에 속해 있던 상당수의 의병들이 포함되어 있으리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沈南一은 의병에 투신한 지 약 6개월만인 1908년 음력 2월경 南平에서 비로소 독자적인 의병부대의 깃발을 드높이 올리게 되었다.¹⁹⁾

〈表 1〉 沈南一 義兵의 編制



는 그의 字인 德弘에서 '弘'자를, 本名 守澤에서 '澤'자를 따와 弘澤이란 假名을 만들어 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沈弘澤을 沈南一로 보더라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18) 「編冊」153. 義兵將 姜士文·安桂洪·黃斗一·權寧會·沈南一·姜武景取調書(『運動史』V.1, p.790) 참조.

19) 吳駿善, 「義兵將沈南一傳」, 『實記』(『자료집』2, p.927). 한편, 金義煥은 沈南一이 1907년 11월 1일(음력)에 起義한 것으로 이해하였다(『韓國近代史研究論集』, p.509; 『抗日義兵將列傳』, p.206; 「1909年の抗日義兵部隊의 抗

義兵將이 된 沈南一은 먼저 義兵部隊의 部署를 정하였다. 그 지휘체계를 도표로 작성하면 前面과 같다.²⁰⁾

〈表 1〉에서 알 수 있듯이 沈南一 義兵의 하부구성원은 砲卒·騎士·步卒·庶士 등이다. 이들은 각각 10人을 단위로 伍라 하고, 이 伍를 통솔하는 자는 統將, 統將을 다스리는 자는 都統(將), 都統將은 護軍將이나 起軍將의 지휘를 받으며 護軍將과 起軍將은 先鋒將·中軍將·後軍將에게 각각 소속되어 있었다.²¹⁾ 이들이 바로 전투를 담당하므로 沈南一 義兵은 3軍體制의 전투부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사실은 先鋒將이 中軍과 後軍을 통제하게 하여 先鋒將의 권한을 다른 部署의 長보다 훨씬 강화시켜 놓은 점이다.²²⁾ 그것은 義兵將 沈南一과 先鋒將 姜武景이 서로 義兄弟를 맺은 특별한 관계²³⁾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즉, 이들은 그들의 관계를 부대편제에까지 연결시켜 先鋒將이 유사시에 義兵將을 대신케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沈南一 義兵部隊에서의 先鋒將은 실질적으로 副將의 임무를 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書記와 謀士의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자. 書記는 그 명칭으로 보아 부대의 각종 記錄을 담당하는 직책이었을 것이다. 이 점은 書記 兼 謀士였던 廉元淑의 輯錄이 토대가 되어 盡知錄, 즉 현재 우리가 『沈南一實記』라 부르는 책이 전해지게 된 사실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²⁴⁾ 그렇다면

戰』, p. 225).

20) 〈表 1〉은 『實記』의 「有司分定」, 「告示軍中文」, 「接戰日記」와 「編冊」(『運動史』 V. 12~15)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1) 『實記』, 「告示軍中文」(『자료집』 2, p. 917).

22) 同上.

23) 「編冊」 69. 全南警秘發 第2082號, 隆熙 3년 10월 23일자(『運動史』 V. 15, p. 817) 참조. 한편, 沈南一과 姜武景의 처음 만남은 서당훈장과 筆墨商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필묵상인이었던 강무경이 서당훈장인 심남일에 게 자주 드나들었을 것이며, 그때마다 이들은 자신들의 時局觀을 나누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의 뜻이 통함을 확인한 후, 드디어는 義兄弟를 맺게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24) 盡知錄, 즉 『實記』의 跋文(奇東爽撰)에 의하면, 書記兼謀士 廉元淑의 輯錄이

謀士의 임무는 무엇일까. 『實記』의 「靈岩沙村接戰」(『자료집』 2, p. 920)에

(1908) 七月晦日 早朝與謀事長權澤 相謀討賊占之課 曰坐談大道 統道六國 伏兵於左右石築之間 則今日未時 賊首可獲 依其言 而俟之

라거나, 同 「南平巨聲洞接戰」(『자료집』 2, p. 922)에

己酉 三月初八日(中略) 翌曉 俾看乾象 火光冲東 五色虹貫西 謀事權澤占之 曰課兩虎爭鬪 西疇何變 令于軍中

이라 적고 있으며, 또한 謀士 權澤이 스스로

自己는 書記였으므로 스스로 部下를 引率 또는 指揮한 일이 없다.²⁵⁾

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謀士는 직접 部下를 거느리지는 않으나 군사작전계획에 깊이 간여하며, 占卦에 의지하여吉凶을 예언하고 해석하는 임무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은 書記와 謀士를 통솔하는 謀士將의 책임아래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軍糧將은 글자 그대로 의병부대의 물자보급을, 犒軍將은 식사를 책임지는 직책이라 믿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沈南一 義兵의 軍需를 담당했다고 하겠다.

한편, 敎導將은 명칭 그대로 의병의 敎練責任者가 아닐까 한다. 예컨대 全海山 義兵을 보면 敎監의 직책에 있는 자가 抗日鬪爭을 수행하면서 틈틈히 의병에 대한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²⁶⁾ 이로써 미루어 볼 때 沈南一 義兵의 敎導將도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였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敎導將은 의병을 모집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것 같다. 敎導將 高堅元이

自己는 部下를 蒐集한 後 出發豫定이다.²⁷⁾

靈知錄의 토대가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자료집』 2, p. 929). 한편, 『沈南一實記』에 관한 상세한 해설은 『자료집』 2, p. 565를 참고하라.

25) 註18과 같음.

26) 『全海山陣中日記』「己酉二月十九日 己巳條」(『자료집』 2, p. 875).

27) 「編冊」11. 韓憲警乙 第1366號, 明治41년 12월 4일자(『運動史』V.12, p. 663).

라고 말한 점으로 보아 敎導將의 임무중에서 새로운 의병의 충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敎導將은 의병을 충원하여 그들을 敎練시키는 직책이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先鋒將은 副將을 겸임하면서 中軍將·後軍將과 함께 직접 전투를 담당하는 부대를 지휘하였다. 그리고 謀士將은 작전의 수립과吉凶을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敎導將은 의병충원과 敎練을 담당하였으며, 軍糧將은 軍需를 책임졌다. 이들은 직접 전투부대를 지휘하지는 않았으나 義兵將을 보좌하는 이른바 參謀인 셈이다. 義兵將 沈南一은 先鋒將 이하 모든 의병을 총괄 지휘·통솔하였음은 물론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沈南一 義兵의 부대편제가 매우 정연하고 조직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部署가 완비되자 沈南一은 행동강령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할 10개 조항을 告示하였다. 『實記』「告示軍中文」(『자료집』 2, pp. 917~8)에

一. 左右先鋒 統於大將軍 中軍後軍 統於先鋒 護軍起軍 統於中軍 砲卒騎士 步卒庶士 統於起軍 砲卒騎士 步卒庶士 以十人爲伍 亦各有統長 所統之中 若有犯科 統長治之 統長有過 各隨所統 而治之

一. 以義爲名 行軍所到 若有無賴行爲 或棒打居民 或突入內庭 是亂軍 隨輕重抵罪

一. 所到村閭 若有攘取財穀 是賊軍 斬

一. 或劫婦女 或殺害人命 是逆軍 殺無赦

一. 或奪掠牛馬 濫殺鷄犬 是盜軍 輕重抵罪

一. 或稱 義所所令 偷掠假章 討索民間 是通軍 自洞中詳查 縛上 自義所處斬

一. 所到邑府 或任碎庫鑰 或擅奪官物 邦有常刑 報官處罰

一. 所經各處田疇 所種穀物 由路愼行 若有踐踏者 抵罪

一. 伏兵時 聞砲聲 一并放砲 若遲疑不發 罪

一. 犒軍將 擊鈸 一并聚集 一時齊食 先時者罪 後時者罪 右一一施行是乃 若或等視不遵 各自所統擔罪

라고 하여, 위의 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즉 제1조에는 의병의 지휘체제와 규율을 어긴 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 놓았다. 제2·3·4·5·6·8조에서는 민폐의 종류를 분류하여 그것을 어기지 말라는 점을

〈表 2〉 沈南一 義兵의 주요 구성원 분석표*

번호	④ 성명(一名)	⑤ 나이 (1909)	⑥ 신분(직업)	⑦ 임무	⑧ 거 주 지	⑨ 해산후거취 (1909)	⑩ 비 고
1	沈南一(守澤)	38	유생(농업)	大將	咸平, 月也, 亭山, 新基	체포(10. 9.)	원래 金聿의 部將 사형(1910. 10. 4.)
2	權澤(寧會)	25	" "	謀士將	羅州, 南平, 郁谷, 九禮洞	체포(9. 23.)	원래 金聿의 部將 사형 『沈南一實記』를 輯錄
3	廉元淑			書記兼謀士			
4	鄭榮兌			謀士			
5	姜武景(鉉秀)	32	(筆墨商)	先鋒將	茂長, 豐, 雪川	체포(10. 9.)	沈南一과 의형제 맺음 사형(1910. 10. 4.)
6	張仁初(甫)	34	(목수)	"	和順, 寒泉, 於待洞	체포(9.)	安圭洪 義兵에서 활동 사형(1910. 9. 30.)
7	安贊在		유생	中軍將		계속투쟁	林昌模부대의 함류 전 사(1909. 10. 13.)
8	朴士化	28, 9		"		체포(10. 13.)	자수했다가 도망→체 포
9	盧柄友(一堂)			後軍將			
10	羅聖化	35		"	羅州, 馬山, 左倉	체포(10. 13.)	
11	金道淑			都統將			
12	柳致善			統將			
13	孔靈淑			"			
14	李世昌	28	(농업)	軍糧將	長興, 長西, 牛山里	체포(9. 29.)	사형(1910. 10. 31.)
15	高堅元(南大)	38		教導將		체포(1908. 11. 19)	
16	姜達周	30		護軍將		자수(10. 16.)	朴珉洪 · 朴士化 義兵 에서 도 활동, 사형
17	金致洪	31		起軍將	靈岩, 終南, 新元村	체포(9.)	

18	宣道明	56		砲 都	전사(10. 8.)
19	姜采洪			將 部	체포(9.)
20	牟千年			"	자수(10. 3.)
21	尹洪八	31		"	체포(9. 10.)
22	李江山			"	자수(10. 9.)
23	林行楚	31		"	체포(9. 18.)
24	金順基	33		下 部	자수(10. 1~2.)
25	金五鳳	33		"	" (10. 1~2.)
26	朴基順	25		"	" (10. 1~2.)
27	朴文基	31		"	" (10. 1~2.)

* 이 表는 『沈南一實記』, 『編冊』(『運動史』 V. 1, 12~15), 『자료집』 별집 1(의병항쟁재판기록), 金正明편 『朝鮮獨立運動』 I, 『全南暴徒史』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원래 김윤의 부장

羅州, 南平, 馬飲村

" , " , 郁谷, 雲谷

" , " , "

" , " , 竹谷, 臥牛

분명히 하였는데, 이것은 특히 민간의 재산 보호에 역점을 둔 것이다. 그리고 제 7 조는 국가재산보호에 관한 것이고, 제 9 조는 전투시 지켜야 할 사항, 마지막으로 제 10 조는 의병의 식사시간 준수를 언급하고 있다. 이상을 살펴보면 沈南一은 민간인의 보호를 최대한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은 『實記』「綾州突井接戰」(『자료집』 2, p. 921) 중에서도

撫慰百姓 無攘奪錢財 毋劫掠 毋擄打無辜 毋經發 毋驕賊 所到與百姓 家人相視
欣欣相迎 毋失民望也

라고 하여, 항일투쟁과정에서도 변함없이 민간인 보호에 크게 중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위의 인용문에서 암시하듯이 의병에 대한 민간인의 지지를 계속 확보하려는 생각에서 그러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民弊를 끼친 범법자는 가혹하리만큼 엄격히 다스렸다.²⁸⁾ 이로 말미암아 일본측 기록에서조차 沈南一은 부하의 비행을 엄히 다스리고 재물의 강탈을 금지시킨 義兵將이라 적고 있다.²⁹⁾

이제 沈南一 義兵의 주요구성원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먼저 <表 2>의 B항을 보면 沈南一 義兵의 연령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20~30 代の 청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⁰⁾ 따라서 沈南一 義兵의 경우,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게릴라전술을 훨씬 용이하게 구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혈기왕성한 연령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들의 신분이나 직업을 알아보자. <表 2>의 C項을 보면 이들의 신분이나 직업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몇몇 주요인물들만 어느

28) 예컨대 1909년 4월 초 沈南一은 民弊를 끼친 그의 부하 3명을 죽인 일도 있었다(『編冊』 38. 警收 第 1499~1, 隆熙 3년 4월 9일자『運動史』 V. 14, p. 116) 참조.

29) 158. 南韓暴徒大討伐實施報告, 『運動史』 V. 1, p. 806 참조.

30) <表 2>의 18項에 있는 宜道明은 56세이다. 이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극히 드물었을 것이다.

정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신분이나 직업을 推斷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주요인물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약간의 전망이 서지 않을까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義兵將 沈南一은 다소 학식을 갖춘 서당 訓長으로서 경제적으로는 농민과 다름없는 처지였다. 先鋒將 姜武景의 직업은 筆墨商으로 文字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 전혀 모른 것 같지는 않다. 그가 沈南一의 편지를 읽고서 의병에 투신한 점을 보아 그러하다.³¹⁾ 또한 先鋒將을 역임한 바 있는 張仁初는 목수출신이며, 謀士將 權澤은 崔益鉉의 門下에서 한 때 修學한 적이 있는 儒生이지만 그 역시 沈南一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는 농민과 비슷한 처지였다.³²⁾ 그리고 中軍將 安贊在는 儒生이었을 것이다.³³⁾ 그러나 이들의 휘하에서 활동한 대부분의 의병들은 대개 농민이거나 그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³⁴⁾ 요컨대 沈南一 義兵은 다소의 학식을 갖춘 儒生과 농민 및 상인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대다수의 의병들은 가난한 常民出身이었을 것³⁵⁾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이들의 거주지는 <表 2>의 E項에 밝혀진 바와 같이 咸平·羅州 長興·南平등지로서 출신지역과 활동지역이 일치하고 있다.³⁶⁾ 이것을 볼

31) 『編冊』153. 義兵將 姜士文·安桂洪·黃斗一·權寧會·沈南一·姜武景取調書(『運動史』V.1, p.791) 참조. 한편, 金義煥은, 그를 문장에 능한 유생인 鄉班출신으로 보고 있다(『1909年の抗日義兵部隊의 抗戰』, p.229).

32) 同上(p.789).

33) 中軍將 安贊在는 1907년 의병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10年 流配刑을 받은 자였다(黃致, 『梔泉野錄』권 5, p.419). 그러한 그가 어떻게 해서 다시 의병에 가담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그의 신분이 參奉이라 기록된 점으로 보면 儒生出身으로 보아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I <原書房, 東京, 1977>, p.76).

34) 당시 일본측은 中軍將 朴士化를 「端正 髯을蓄하고 流名一團의 首魁로서 부끄럽지 않은 風采의 好男子」라 하였으며, 그의 부하들에 대해서는 「探하기에足하지 않은 雜輩」라고 하였다(『編冊』59. 羅警秘收 第647~1, 隆熙 3년 7월 29일자<『運動史』V.15, pp.109~110>).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沈南一 義兵의 지도부는 어느 정도 학식과 용기를 겸비한 인물일 것이며, 그 부하들은 농민들이거나 그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일 것이다.

35) 沈南一이 그의 부하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사실만 보더라도 그들의 처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編冊』11. 韓憲警乙 第1366號, 明治 41년 12월 4일자 <『運動史』V.12, p.663>).

36) 註 32와 같음.

때 沈南一 義兵은 출신지역을 기반으로 주민의 지지를 얻어서 抗日鬪爭을 전개한 것으로 이해된다.

Ⅲ. 沈南一 義兵의 活動

이제 독자적인 義兵部隊로 새출발한 沈南一 義兵의 舉兵目標에 대하여 먼저 살펴 보도록 하자. 義兵將 沈南一이

日本 政策이 韓國을 德化함에 있지 않고 暴力으로써 이를 奪取하려 함으로써 日本을 韓國에서 驅逐³⁷⁾.....

이라고 말하였으며, 先鋒將 姜武景은

日本人이 官吏가 되어 韓國의 山林 川澤이 모두 (日本) 소유에 돌아가고 或은 斷髮을 강요하는 등의 事를 憤慨하던 次 隆熙 二年 陰四月頃 沈南一에게서 書面으로써 자못 加入을 勸誘받아 그의 部下가 되다.³⁸⁾

라고 말한 점, 그리고 謀士將 權澤은

自己는 늘 이를(崔益鉉의 죽음; 필자주) 遺德으로 하여 皇帝讓位, 軍隊解散, 日本官吏任用 등의 事에 있어 이것을 日本抑壓이라고 憤慨하고 있던 차에 隆熙 二年 陰 六月二十八日 沈南一에게 불리어 南平郡 竹谷面 德龍山에서 비로소 同人과 會見하고 같이 國事に 盡力.....³⁹⁾

이라 하였으며, 또한 教導長 高堅元도

義兵의 目的은 朝鮮國의 權利을 掠奪當하였으므로 此를 回復하기 위해서이다⁴⁰⁾

37) 「編冊」 153. 義兵將 姜士文·安桂洪·黃斗一·權寧會·沈南一·姜武景取調書(『運動史』 V.1, p.790) 참조.

38) 同上(p.791).

39) 同上(p.789).

40) 「編冊」 11. 韓憲警乙 第1366號, 明治 41年 12월 4일자(『運動史』 V.12, p.663) 참조.

라고 말하였다. 이상과 같이 義兵將 沈南一을 비롯한 핵심 지도부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들은 일본의 무력적 주권 강탈과 경제적 침탈, 斷髮問題, 日本人官吏의 任命, 軍隊解散과 皇帝讓位 등에 대하여 매우 격렬히 반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沈南一 義兵은 日本帝國主義의 침략을 저지하여 國權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였는지 궁금하다. 軍用金의 마련이 곧 抗日鬭爭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沈南一은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部下들에게 1일 100文씩 급여를 주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敎導長 高堅元은

部下는 1人에 對하여 一日 葉錢百式을 給한다. 이 돈은 地方의 富豪로부터 供給시키는 것이다.⁴¹⁾

라고 말하였듯이, 의병의 급여는 富豪들로부터 軍用金을 제공받아 해결하였다.⁴²⁾ 또한 沈南一은 公錢領收員, 즉 稅務官吏들로부터 稅金을 빼앗아 의병활동의 財源으로 삼았다.⁴³⁾ 그리고 활동지역의 各面長들에게 軍用金を 할당하여 거두어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編冊」95. 長警秘發 第29號, 隆熙 3년 4월 23일자(『運動史』V. 14, pp. 154~5)에

本月(1909년 4월: 필자주) 18日 寶城郡 彌力面 石虎山에서 沈(南一; 필자주) 安(圭洪; 필자주) 二首魁가 引率하는 暴徒 約二百名이 集合 同郡內十四面長에게 五十圓乃至二百圓을 供與할 것을 命하였던 바 二・三의 面長은 不得已 二十圓乃至三十圓을 提供한 것 같다.

라고 있듯이, 沈南一과 定圭洪이 연합하여 寶城郡 14개 面長에게 軍用金を 할당, 제공받고 있다. 요컨대, 沈南一 義兵은 地方의 富豪, 公錢領收員

41) 同上(p. 662).

42) 이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주는 기록으로는 『자료집』별집 1(의병항쟁재판기록)의 起軍將 金致洪과 軍糧將 李世昌의 재판기록을 참고하라(pp. 812~3, p. 850~2).

43) 「編冊」10. 韓憲警乙 第879號, 明治 41년 7월 18일자(『運動史』V. 11, p. 401) 참조.

활동지역내의 面長들로부터 軍用金을 제공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은 대체로 軍糧將의 책임아래 이루어졌을 것이다.⁴⁴⁾

이제 沈南一 義兵의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들의 의병활동은 몇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親日勢力을 제거하는 활동이다. 1908년 4월 沈南一은 湖南義所의 이름으로 通文을 게시하였는데, 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大抵 倭賊類가 本郡守 稅務官及 各面 領收員과 符同하여 莫大한 國稅를 實徵하여 倭賊의 軍需錢及 軍糧에 充當한다(中略) 萬若 如此 弊가 있으면 倭와 同類也라⁴⁵⁾

위에서 볼 수 있듯이, 郡守·稅務官 그리고 各面の 公錢領收員들이 거두는 國稅가 일본군의 군사비에 충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한다면 倭賊과 同類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는 다른 通文에서도 세금징수 거부를 종용하였으며, 아울러 一進會員들로 구성된 自衛團과 韓人 憲兵補助員들도 倭와 함께 제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⁴⁶⁾ 요컨대 沈南一 義兵의 제거대상은 國稅의 납부를 강요하는 郡守와 公錢領收員, 그리고 自衛團員, 韓人 憲兵補助員 등인데, 이들이 바로 일본의 앞잡이라는 점에서 親日勢力이므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徵稅拒否鬭爭에 중점을 두었다.⁴⁷⁾ 그것은 각종 稅金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보호해줌으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시킬 수 있고,⁴⁸⁾ 게다가 의

44) 李世昌의 재판기록(『자료집』 별집 1, pp. 850~2).

45) 「編冊」 50. 長秘收 第 80·81 號中, 隆熙 2년 4월 30일 자(『運動史』 V. 10, p. 347) 참조.

46) 「編冊」 14. 第 726 號, 隆熙 2년 5월 5일 자(『運動史』 V. 10, p. 515)와 10. 韓憲警乙 第 879 號, 明治 41년 7월 18일 자(『運動史』 V. 11, p. 400) 그리고 『實記』의 「喻土倭文」, 「警喻各處補助員」, 「告示各郡面長與領員與里長」(『자료집』 2, pp. 915~917) 참조.

47) 「編冊」 109. 長警秘收 第 232 號, 隆熙 3년 4월 27일 자(『運動史』 V. 14, p. 163)와 李世昌재판기록(『자료집』 별집 1, pp. 850~2) 참조.

48) 당시 일본측은 의병들이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조세의 업무가 전혀 안된 것으로 파악하였다(「編冊」 3. 光秘發 第 67 號, 隆熙 2년 1월 25일 자 <『運動

〈表 3〉 沈南一 義兵의 주요 反日武力闘爭活動

번호	④날 짜	⑤접진장소	⑥의병 규모	⑦교전대상	⑧교전형태	⑨전 거	⑩비 고
1	1908. 3. 7. (음)	康津, 吾治洞		수		『實記』 p. 919	
2	1908. 4. 15. (음)	長興, 權岩		"	매복요격	" p. 919	
3	1908. 6. 19. (음)	羅州, 南平, 長湍院		"	"	" p. 920	
4	1908. 6. 25. (음)	和順, 綾州, 老狗頭	90	"	추미기습	" p. 920	
5	1908. 8. 1. (음)	羅州, 盤峙		"	매복요격	『實記』 p. 920	
6	1908. 8. 24.	寶城, 文德, 眞山	170	"		『編輯資料』 p. 564	安圭洪 의병과 연합
7	1908. 8. 26.	靈岩, 德津, 內洞山	100	수	매복요격	『暴徒史』 p. 61	
8	1908. 8. 28.	長興, 有治, 寒大洞	150	"		『暴徒史』 p. 61	
9	1908. 9. 26.	" " 新豐	100	순	야간기습	" p. 66	
10	1908. 10. 22.	咸平, 龍珍山	150	토		" p. 69	全海山 의병과 연합
11	1908. 10. 23.	" " 石門山	250	"		" p. 69	全海山·曹京煥·金基順 의병과 연합
12	1908. 10. 9. (음)	海南, 城內	300	현	야간기습	『實記』 p. 921	
13	1908. 11. 26.	和順, 綾州, 石亭	150	현병·경찰대 동정찰대		『暴徒史』 p. 75	
14	1909. 1. 19.	羅州, 多侍, 草洞	150	현병토벌대		" p. 88	
15	1909. 3. 15.	寶城, 福內, 조소리	80	현병대·재무사		『運動史』 V. 13, p. 738	

16	1909.3.8(금)	羅州, 南平, 巨聲洞	수백명	수	비	대	매복요격	『實記』 pp. 921~2	全海山·安圭洪·李 大局 의병등과 연합
17	1909.4.29.	和順, 綾州, 風峙	150	토	발	대		『暴徒史』 p. 106	
18	1909.5.12.	寶城, 熊峙	150	수	비	대		『編輯資料』 pp. 802 ~3	
19	1909.5.12.(금)	" , 泉洞		수	비	대		『實記』 p. 923	安圭洪 의병과 연합
20	1909.7.1.	長興, 長西, 鳳舞洞	60	현	병	대		『暴徒史』 p. 121	
21	1909.7.21.(금)	靈岩, 金摩, 古引洞						『運動史』 V.1, pp. 790~1	解散
22	1909.9.18							『暴徒史』 p. 136	제 2 대대 본부에 沈 南一 부하 8명 투항
23	1909.10.9.	和順, 綾州, 風峙						『運動史』 V.1, p. 786	제 2 연대 제 3 중대 에 沈南一·姜武景 등 체포.

병활동의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義兵을 빙자한 도적을 퇴치하는 활동이다. 沈南一은 1908년 6월에

近聞雜輩 二三四五徒黨 稱以義兵 是遭橫行客里 煽動民心 討索錢非常云(中略) 賤徒所到 村洞民 因夜急步 來告于義所 是去乃結縛 自本部押上⁴⁹⁾

이라 廣告하였다. 즉, 雜輩들이 약간의 무리를 지어 의병이라 칭하고서 民財를 강탈하면 義所에 곧바로 알리거나 잡아보내라는 것이다. 假義兵의 준동을 크게 우려하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沈南一 義兵의 의도를 헤아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假義兵의 퇴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한 만큼 자신들의 의병활동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었을 것이고, 나아가 주민들로부터 한층 신뢰받을 수 있는 의병부대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세째로 反日鬭爭活動, 즉 일본세력을 驅逐하기 위한 활동이다. 沈南一 義兵은 먼저 日本軍이 種痘를 빌미삼아 무고한 한국인을 살해한다는 사실을 널리 유포시켰다.⁵⁰⁾ 이 점은 沈南一 義兵이 排日感情을 고조시키고자 주민들의 種痘에 대한 편견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그들은 日本勢力을 몰아내기 위하여 적극적인 武力鬭爭을 전개하였다. 沈南一 義兵의 反日武力鬭爭 活動을 표로 만들면 앞면과 같다.

〈表 3〉의 A항에서 볼 수 있듯이 沈南一 義兵의 본격적인 反日武力鬭爭은 1908년 음력 3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약 1년 반동안 활동한 셈인데 이 때가 바로 全羅道の 의병활동이 가

史』V. 9, p.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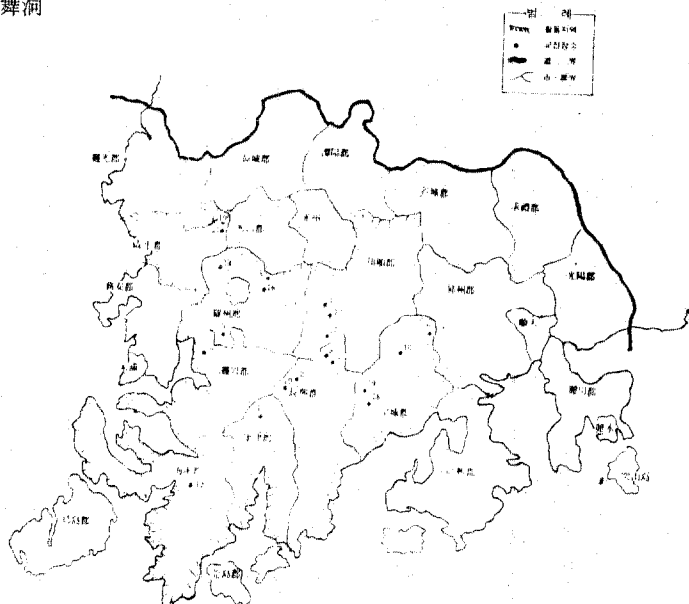
49) 『編冊』10. 韓憲誓乙 第 879 號, 明治 41 年 7 月 18 日자(『運動史』V. 11, p. 401) 참조.

50) 『編冊』50. 長秘收 第 80·81 號中, 隆熙 2 年 4 月 30 日자(『運動史』V. 10, p. 347)와 14. 第 726 號, 隆熙 2 年 5 月 5 日자(『運動史』V. 10, pp. 515~6) 참조.

51) 註 38 과 같음. 한편, 敎導長 高堅元도 그들의 활동지역을 羅州·南平·綾州 寶城郡의 南西地方이라 하였다(『編冊』11. 韓憲誓乙 第 1366 號, 明治 41 年 12 月 4 日자(『運動史』V. 12, p. 663)).

〈地圖〉 沈南一義兵의 주요 反日鬭爭圖

1. 吾治洞 2. 蠶岩 3. 長淡院 4. 老狗頭 5. 盤峙
 6. 眞山 7. 內洞山 8. 寒大洞 9. 新豐 10. 龍珍山
 11. 石門山 12. 海南城 13. 石亭 14. 草洞 15. 福
 內 16. 巨聲洞 17. 風峙 18. 熊峙 19. 泉洞 20. 鳳
 舞洞



장 활발한 시기였다.

이들의 활동지역은 주로 羅州, 咸平, 和順, 靈岩, 寶城, 長興, 康津, 海南郡 등이었다(〈表 3〉의 B항 참조). 이 점은 沈南一이 「根據地는 일정하지 않으며 主된 出沒地城은 羅州, 南平, 綾州, 康津, 靈岩, 長興, 寶城 등의 各郡」이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先鋒將 姜武景도 沈南一과 똑같이 말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확인할 수 있다.⁵¹⁾ 그들이 일정한 근거지를 갖지 않았다는 점은 日本軍에게 탐지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沈南一은 근거지의 노출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⁵²⁾ 그리하여 沈南一 義兵은 아예 근거지를 갖지 않고서 羅州—

康津을 축으로 하는 全羅南道の 中南部地域에서 주로 활동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活動地域과 주요 戰鬪地點을 도표화하면 前面과 같다.

〈表 3〉의 C項에서는 沈南一 義兵의 규모를 알려준다. 이들은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이르렀으나, 대개의 경우 약 150~200명 정도였던 것 같다.⁵³⁾ 당시 그와 비슷한 세력을 가진 義兵將으로는 全海山과 安圭洪에 지나지 않았다.⁵⁴⁾ 따라서 沈南一 義兵을 당시의 가장 세력이 큰 義兵部隊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다.⁵⁵⁾

그러면 이들의 주된 공격대상은 누구일까. 〈表 3〉의 D項에 의하면 日本의 守備隊와 憲兵隊 그리고 巡査隊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야말로 日本帝國主義의 침범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日本軍은 義兵에 비하여 비교가 안될 정도의 火力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본전술을 철저히 익힌 정규군이였다. 따라서 그들과 對敵하는 沈南一 義兵은 무모한 정면공격을 피하고, 주로 지형지물을 이용한 매복요격이나 야간 기습공격과 같은 게릴라 전법을 구사하였다⁵⁶⁾(〈表 3〉의 E항 참조). 그것만이 火力과 기본전술의 열세로부터 의병부대를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측도,

52) 그가 奇參衍·金泰元·金聿 휘하에서 활동할 때 그들의 근거지가 日本軍에 노출되어 결정적인 타격을 받기도 하였다(『暴徒史』, p. 35와 pp. 44~5와 「暴徒史編輯資料」 全南警備親 제 89호, 隆熙 2년 9월 29일자 〈『자료집』 3, p. 555〉 참조).

53) 「編冊」의 暴徒勢力比較表에 의하면 1908년 12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의 沈南一 휘하의 의병은 약 150~200명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運動史』 V. 13, p. 227, 437, 725, V. 14, pp. 440~1, pp. 650~1, V. 15, pp. 141~2, p. 341). 그런가 하면 약 500명 정도로 추산되기도 하였다(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I, 59, 「臨時韓國派遣隊의 南韓討伐實施報告의件」, p. 83).

54) 註 53의 暴徒勢力比較表와 『暴徒史』, pp. 8~9 참조.

55) 同上.

56) 奇參衍·金泰元·金聿 등은 주재소와 우편취급소 등을 정면 공격하였다(『暴徒史編輯資料』〈『자료집』 3, p. 562〉). 이러한 공격 방법은 갈수록 의병에게 불리했던 것 같다. 일본군이 그것에 대비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합평주재소를 제 1차 습격할 때에는 의병의 피해가 거의 없었으나, 제 2차 공격시에는 약 32명의 사상자를 낸 것만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同上). 이에 沈南一은 의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日本軍에 손실을 입히기 위한 전술로서 게릴라 전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彼等(의병; 필자주)는 正面으로 我에 對抗하는 不可能을 깨닫고 이제 商人 又は 農民의 風을 假裝하고 銳器를 隱匿하여 두고 萬若 我兵力이 寡少하여 적어도 間隙이 있다면 不意의 襲擊을 하고 곧 分散하여 良民의 伍伴에 入함을 常例...⁵⁷

라고 하였듯이, 게릴라 전술이 의병들 사이에서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沈南一 義兵은 일본 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戰鬪方法의 개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기를 확보하는 데에도 꾸준히 노력한 것 같다. 즉 그들은 1908년 12월 초순, 약 170명의 兵力에 30年式步兵銃 3挺, 同騎兵銃 3挺, 千步銃 8挺 그리고 火繩銃 127挺을 보유하고 있었다.⁵⁸⁾ 그가운데 步兵銃과 騎兵銃은 일본군으로부터 노획한 것이었다.⁵⁹⁾ 그런데 그로부터 약 5개월후인 1909년 5월초에 이들은 136명의 兵力에 30年式 騎兵銃 3挺, 獵銃 20여挺, 나머지는 모두 火繩銃(6명은 무기 未所持)을 所持하고 있었다.⁶⁰⁾ 이들이 갖고 있는 무기 가운데 千步銃, 즉 뇌관식으로 개량된 火繩銃의 有無는 잘 알 수 없으나⁶¹⁾ 獵銃이 20여挺이나 되었다는 점에서 점차 신무기로 교체되어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신무기와 탄약의 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敎導長 高堅元이

彈藥은, 鉛은 漁網의 錘 又は 鑛鑪茶碗細工人으로부터 徵收하고 火藥은 床下의 土로써 舊來의 製造方法에 依하여 製造한다. 또 外國人으로부터 買入하는 일

57) 「編冊」10. 韓憲警乙 제 1163 호, 明治 41년 10월 7일자(『運動史』V.12, 8324) 참조.

58) 「編冊」11. 韓憲警乙 第 1366 號, 明治 41년 12월 4일자(『運動史』V.12, p. 663) 참조.

59) 同上.

60) 「編冊」44. 羅警秘收 第 4229~1, 隆熙 3년 5월 12일자(『運動史』V.14, p. 382) 참조.

61) 「朝鮮暴徒討伐誌」(『자료집』3, p. 772)에 의하면, 의병들이 1908년 2월 이후 火繩銃의 改造에 고심하다가 마침내 4월 경에 거의 그 대부분을 雷管式으로 개조하였다고 한다. 이른바 千步銃이 그것이다. 그런데 沈南一 義兵의 무기가운데에는 의외로 千步銃이 많지 않다.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서 일 수도 있고, 火繩銃과 千步銃을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위의 일본측 기록으로 볼 때, 이들 역시 千步銃의 보유가 증가되었으리라 추측된다.

도 있다.⁶²⁾

라고 말한 점으로 볼 때, 沈南一 義兵의 彈藥과 火藥의 제조·조달은 재래식 방법에 주로 의존하였으며 外國人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外國人과의 거래에는 彈藥뿐만 아니라 洋銃도 포함되었으리라 추측된다. 또한 沈南一 義兵의 주 활동지역이면서 그의 出身地이기도 한 咸平郡에서 義兵의 銃改造所가 일본측에 발각된 일이 있었던⁶³⁾ 것으로 보아 이 銃改造所는 火繩銃을 뇌관식으로 개조하는 곳으로 짐작된다. 요컨대 沈南一 義兵은 銃器와 彈藥등을 자체적으로 제조·조달하고 신무기는 日本軍警과의 전투에서 노획하거나 外國人으로부터 구입하여 조달하였다.

한편, 沈南一은 각 의병부대의 독자적인 활동보다는 연대투쟁을 중시하였다. 예컨대, 1908년 봄 安圭洪이 의병을 조직할 때에도 그와의 合力併進을 요청하였으며,⁶⁴⁾ 同年 8월에는 全海山과도 그러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었다.⁶⁵⁾ 실제로 1908년 8월 이후에는 安圭洪·全海山·曹京煥 義兵등과 수시로 연합하여 抗日鬪爭을 전개하였는데 (<表 3>의 6·10·11·16·19항 참조), 이러한 결과는 沈南一의 노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沈南一이 여러 의병부대와의 연합을 증시한 까닭은 日本軍의 강력한 진압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었다.⁶⁶⁾

이에 대하여 日本측은 다양한 형태의 진압작전을 시도했음은 물론이다.

62) 「編冊」 11. 韓憲警乙 第 1366 號, 明治 41 年 12 月 4 日(『運動史』 V. 12, p. 662).

63) 皇城新聞 隆熙 2 年 5 月 10 日(『地方消息一通』 참조).

64) 『濟山實記』 「副將廉在輔行錄」 및 拙稿, 「安圭洪 義兵의 組織과 그 活動」, 『韓國學報』 49, 1987 年 겨울호, p. 94의 註 69 참조.

65) 『全海山陣中日記』 (戊申年編) 九月十八日(『자료집』 2, pp. 853~4) 참조.

66) 拙稿, pp. 95~6 과 金京煥, 「1909 年의 抗日義兵部隊의 抗戰」, 『民族文化論叢』 8, 1987, p. 227 참조. 한편, 沈南一 義兵의 軍糧將 李世昌은,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없으므로 南北道의 義兵이 합세하면 大事, 즉 일본 세력의 驅逐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實記』, 「寶城泉洞接戰」 <『자료집』 2, p. 923>). 여기에서 그들의 연합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908년 10월에 榮山浦憲兵分隊의 후원 아래 一進會員들로 구성된 偵察隊가 발족되어 의병진압을 목적으로 한 偵察을 실시하였다.⁶⁷⁾ 또한 그 해 12월 15일에는 榮山浦憲兵分隊長의 지휘아래 8개 부대가, 光州守備隊에서는 3개 부대가 각각 편성되어 동시에 출동하였다.⁶⁸⁾ 그리고 1909년 6월초에도 3개월 예정으로 3개의 變裝偵察隊가 활동에 들어갔는데, 그들의 목적은 당시 全羅道의 가장 대표적 義兵將인 沈南一을 비롯한 全海山 安圭洪 등의 근거지를 찾아내는 것이었다.⁶⁹⁾ 또 7월 중순에도 1개월 예정으로 11개 부대가 편성되었는데, 이들 역시 「主된 目的은 全海山 沈南一을 殲하는데 있다」고 함으로써⁷⁰⁾ 당시 일본측이 沈南一의 제거에 얼마나 힘을 기울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에 沈南一 義兵은 1909년 7월경 부대를 분산하여 활동을 일시 중단한 것 같다. 「編冊」102. 全南警秘發 第1470號 「七月暴徒勢力比較表」의 비고란(『運動史』V. 15, p. 142)에

本月에 入하여 守備隊가 大討伐을 開始하였으므로써 賊勢凋落 昔日의 橫暴이고 全·沈·安과 如한 大首魁는 一時 部下를 解散 又は 小分하고 首魁는 어딘가 潛伏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였는데, 沈南一 義兵의 경우에는 部下를 나누어 潛伏한 듯하다.⁷¹⁾ 이처럼 대표적인 의병부대들이 활동을 중단하고 자취를 감추자 일본측은 의병의 근거지를 찾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른바 「南韓暴徒

67) 「編冊」11. 羅警秘收 第899~1, 隆熙 2년 10월 26일자(『運動史』V. 12, pp. 231~6) 참조.

68) 『暴徒史』, p. 79.

69) 「編冊」3. 全南警秘發 第1004號, 隆熙 3년 6월 1일자(『運動史』V. 14, pp. 581~4) 참조.

70) 「編冊」36. 全南警秘發 第1271號, 隆熙 3년 7월 12일자(『運動史』V. 15, p. 92) 참조.

71) 「表 3」의 20項에 의하면, 1909년 7월초 沈南一 義兵의 규모는 약 6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沈南一의 부하 분산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大討伐作戰」이 그것이다.⁷²⁾

일본측의 이러한 의병진압계획이 알려지자 1909년 8월말 沈南一·全海山 등 수 명이 康津郡 某處에 모여 일본군의 군사작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 같다.⁷³⁾ 여기에는 당시 全南地方의 대표적인 義兵將들이 모여 의병부대를 해산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투쟁할 것인가를 토의한 것으로 추측된다.⁷⁴⁾ 沈南一은 그 會合이 있은지 얼마 후에 의병부대를 해산한 것 같다. 그가 체포된 후

(上略)到底히 事成치 못함을 생각하고 本年(1909; 필자주) 七月二十一日(陰曆) 靈岩郡 金磨面에서 部下를 解散...⁷⁵⁾

이라고 말한 점으로 보아 그러하다. 그런데 中軍將 安贊在는 의병해산에 반대하여 林昌模와 합세하여 끝까지 저항하다가 전사하였다.⁷⁶⁾ 義兵을 해산한 沈南一은 姜武景과 함께 日本軍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潛伏해 있다가 결국 1909년 10월 9일에 모두 체포되었다.⁷⁷⁾ 그리고 그 이튿날인 10월 10일에 「南韓暴徒大討伐作戰」도 일단락되었으며,⁷⁸⁾ 그를 체포한 일본군 제 2연대 제 3중대는 「全羅南道 南部에 있어서 隨(首)一이라 稱하는 巨魁

72) 『運動史』 V. 1, pp. 799~831과 金義煥, 「1909年の抗日義兵部隊의 抗戰」, 『民族文化論叢』 8, 1987, pp. 205~253 참조.

73) 拙稿, 앞의 논문, p. 97.

74) 同上.

75) 「編冊」 153. 義兵將 姜士文·安桂洪·黃斗一·權寧會·沈南一·姜武景取調書, 隆熙 3년 10월 15일자(『運動史』 V. 1, pp. 790~1) 참조.

76) 「編冊」 38. 長警 第611號, 隆熙 3년 10월 13일자(『運動史』 V. 15, pp. 785~6)와 『暴徒史』, pp. 140~1 그리고 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I, p. 104 참조. 그런데 中軍將 安贊在가 언제 林昌模에게 합류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그가 의병해산에 반대한 林昌模와 함께 활동하다가 전사한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 역시 의병해산에 반대한 인물일 것으로 추측된다.

77) 「編冊」 31. 長警秘發 第95號, 隆熙 3년 10월 11일자(『運動史』 V. 15, p. 780) 참조. 한편, 沈南一과 姜武景은 1910년 6월 3일 光州地方裁判所에서 死刑을 宣告받아 同年 10월 4일에 刑이 執行되었다(『朝鮮總督府官報』 第46號, 明治 43년 10월 21일자 참조).

78) 「編冊」 33. 全南警秘發 第1951號, 隆熙 3년 10월 13일자(『運動史』 V. 15, p. 780) 참조.

沈南一及其部下有數의 首魁 姜武景을 捕獲한 공로로 상장을 받기까지 하였다.⁷⁹⁾ 일본측조차 「현재(1908; 필자주) 폭도 중에서 가장 교묘한 자」⁸⁰⁾라고 일컬었으며, 당시 全南地方에 「南一乘龍馬而聳出於山外 鉉秀(姜武景: 필자주) 風雲造化飛上空中」⁸¹⁾이라는 노래를 유행시키게 한 장본인인 沈南一의 체포는 舊韓末 全南義兵의 커다란 손실이었다. 후일 白岩 朴殷植은 沈南一에 대하여

그는 흰한 얼굴에 흰칠한 풍채로 재주가 뛰어나고 機智가 많았었다. 의병 70⁰ 여명을 소집하여 누차 奇計로 토적하여 매우 威望이 있었으나 마침내 長興郡의 동쪽 산에서 패전하여 의병장 姜武景과 함께 전사(체포: 필자주)하였다.⁸²⁾

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Ⅳ. 맺는말

지금까지 1908~9년 사이에 全羅南道의 中南部地方에서 크게 활약한 沈南一 義兵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앞에서 논의한 바를 간단히 요약함으로써 맺는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沈南一(1871~1910)은 다소의 학식이 있어서 서당 訓長을 지낸 적도 있었으나 경제적으로는 농민과 다름없는 처지로서 2男 3女를 둔 평범한 家長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義理의 墨守者로 일본의 주권 침탈에 대항하기 위한 의병을 모집하였으나 옹하는 자가 얼마 안되었다. 그가 명망있는 儒生도 아니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보잘 것 없는 시골 寒士에 지나지 않았

79) 「編冊」 158. 南韓暴徒大討伐實施報告, 明治 41년 10월 27일자(『運動史』V. 1, p. 827) 참조.

80) 「暴徒史編輯資料」, 全南警備親 告 89호, 隆熙 2년 9월 29일자(『자료집』 3, p. 558) 참조.

81) 『實記』, 「綾州風峙援戰」(『자료집』 2, p. 922).

82)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上(南晚星譯, 瑞文文庫 191, 1975) p. 57.

기 때문이다.

그러나 沈南一은 그의 뜻을 펴기 위해 당시 가장 유력한 儒生義兵將 奇參衍 휘하의 金聿義兵部隊에 소속되어 部長으로 활동하였다. 이 때가 1907년 9월이었다. 그러던 중 日本軍警의 강력한 공세를 받아 義兵將 奇參衍 金聿 등이 차례로 죽음을 당하자, 대부분의 의병들도 일본군의 추적을 피해 사방으로 떠나갔다.

이에 沈南一은 종래 金聿의 부하를 일부 끌어들여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의병들을 다시 불러모아 1908년 음력 2월에 독자적인 의병부대를 조직하였다. 여기에 가담한 대다수의 의병들은 가난한 常民出身이었으며, 그 지도부는 약간의 학식을 갖춘 儒生에서부터 농민·상인·목수에 이르는 다양한 신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는 먼저 部署와 임무를 정하였는데, 직접 전투를 담당하는 3개 부대는 先鋒將·中軍將·後軍將으로 하여금 통솔하게 하였으며, 군사작전의 수립은 謀士將, 軍糧의 조달 책임은 軍糧將, 의병의 충원과 敎練은 敎導將이 각각 맡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주목되는 사실은 先鋒將이 副將을 겸임하므로써 中軍과 後軍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된 데에는 義兵將 沈南一과 先鋒將 姜武景이 서로 義兄弟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한편, 沈南一 義兵의 軍用金은 地方의 富豪, 활동지역내의 面長들로부터 제공받았다. 그리고 公錢領收員들이 거둔 稅金을 빼앗아 軍用金에 충당하기도 하였다.

沈南一 義兵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압축된다. 첫째로 親日勢力의 제거로, 여기에는 公錢領收員·韓人 憲兵補助員 그리고 一進會員들로 구성된 自衛團 등이 해당된다. 그들이 日本의 羽翼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假義兵을 退治하는 活動이다. 그들이 민폐를 끼치고 의병에 대한 불신을 조장시켰기 때문이다. 셋째로 日本勢力을 驅逐하는 활동이다. 여기에는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침병인 守備隊·憲兵隊·巡查隊 등이 해당된다. 이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沈南一 義兵은 약 200명 내외의

병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新武器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火繩銃을 改造하거나 外國人으로부터 買入하기도 하였다. 물론 反日鬭爭과정에서 신무기를 얻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彈藥이나 火藥은 대부분 스스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주된 활동지역은 羅州와 康津을 軸으로 하는 全羅南道의 中南部地方이었다. 다만 이들은 日本軍警에게 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근거지를 갖지 않은 상태로 활동하였다. 한편, 沈南一은 각 의병 부대의 연대투쟁을 매우 강조한 결과 1908년 중반이후부터 수시로 연합 전선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일본측의 대응도 집요하였는데, 變裝偵察隊와 전담 討伐隊 등의 투입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일본측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이른바 「南韓暴徒大討伐戰」이 실시되었다. 결국 沈南一은 1909년 음력 7월말 부대를 해산하고 잠복해있다가 先鋒將 姜武景과 함께 10월 9일 체포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대규모 군사작전도 일단락되었다.

이상과 같이, 沈南一은 처음에는 독자적인 의병을 형성할 수조차 없는 처지였으나, 그의 탁월한 능력을 발판삼아 羅州—康津을 軸으로하는 全羅南道의 中南部地方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병장이 되었다. 또한 그는 1908년 초 침체에 빠진 全南地方의 의병을 재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아울러 전남에서 활동하는 의병부대간의 聯合義陣 형성을 주도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는 舊韓末 “南一”, 즉 全南 第一의 義兵將으로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다.